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프로야구 8개 구단 1월부터 해외전훈 돌입

프로야구 8개 구단이 내년 1월부터 2007시즌을 대비한 해외 전지훈련에 돌입한다.

이들팀은 시범경기 개막 직전인 3월 중순까지 따뜻한 남쪽나라에서 강도높은 체력 단련과 기술·전술훈련, 실전경기를 병행하며 팀 전력을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

KIA와 LG, 롯데는 캠프를 바꾸고 새 기점으로 시즌을 맞는다.

올해 플로리다에서 겨울을 냈던 KIA는 내년에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훈을 갖는다.

우선 투수진들이 1월 19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훈련을 갖고, 야수 본진은 같은달 26일 미야자키로 합류한다. 그에 앞서 투수 1진은 1월10일 따뜻한 곳에서 어깨를 풀고 본진에 가담할 예정이다. 귀국 일정은 내년 3월 9일이다.

호주와 하와이 등에서 스프링캠프를 차렸던 LG도 사이판으로 장소를 바꿨다. 1월20일 사이판으로 떠나 2월 중순 '제2

의 고향' 오키나와 이시카와로 이동할 참이다.

호주 골드코스트를 애용했던 롯데는 자매팀인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의 본거지 가고시마를 전훈지로 택했다. 투수들은 1월28일부터 2월14일까지 사이판에서 훈련을 먼저 하고 야수 본진은 1월31일 가고시마로 떠나 3월10일까지 전역 다듬기에 나선다.

미국 본토에서 훈련하는 팀은 현대 유니콘스 뿐이다.

겨울 전지훈련지로 플로리다주 브래드던을 고수하고 있는 현대는 1월19일 투수들을 시작으로, 25일 야수 본진이 플로리다로 출국하고 한 달 가까이 훈련을 마친 뒤 일본 가고시마로 이동, 실전 감각을 다듬을 예정이다.

한국시리즈 준우승팀 한화는 1월 말 미국 하와이로 떠나 3월 초까지 한 군데에서만 탐금질에 들어간다.

2년 연속 한국프로야구 챔피언에 오른

8개 구단 전지훈련 일정

구단	훈련 장소	출발일
KIA	일본 미야자키	1월 19일
LG	사이판·일본 오키나와	1월 20일
롯데	사이판·일본 가고시마	1월 28일
현대	미국 플로리다	1월 19일
한화	미국 하와이	1월 31일
삼성	괌·일본 오키나와	1월 13일
SK	일본 고지현·오키나와	1월 14일
두산	일본 미야자키	1월 16일

삼성은 1월13일 괌으로 출국해 체력을 다진 뒤 2월11일 오키나와 온나로 이동, 3월 5일까지 다양한 실전 훈련을 쌓을 예정이다.

'스포테인먼트'로 도약을 노리는 SK와 이번스는 1월14일 일본 시코쿠 섬 고지현에서 첫 전지 훈련을 치른다. 이어 2월15일 오키나와 구시카와에 캠프를 차릴 계획이다.

두산은 1월16일 일본 미야자키로 출발해 보름간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 2월1일부터 쓰쿠미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2월 하순 다시 미야자키로 옮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 포트살렛에서 전지훈련에 한창이던 KIA 선수단 모습. /KIA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내년부터 박진감 넘칠듯

KBO, 마운드 높이 8cm 낮춰 '공격야구' 유도

용병 투수들 내리꽂는 구위 떨어져 '打高' 예상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화끈한 공격 야구의 부활을 위해 내년 시즌부터 마운드 높이를 현행 최고 13인치(33.02cm)에서 국제 규격인 10인치(25.40cm)로 낮추기로 뜻을 모으면서 용병 투수의 위력도 기대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운드 높이는 프로야구 전체 투수진의 기량과 맞물리지만 특히 용병 투수의 경우 대부분 팀의 1~2선발로 중용된다는 점에서 중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IA가 지난 25일 메이저리그에서 4년을 뒀던 경력이 있는 세스 마이클 에터튼을 영입하면서 내년 시즌 활약할 용병 투수

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10명 중 롯데의 호세 카브레라만 마무리 요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발로 각급의 원 투 펀치를 이룰 선수들이다.

미국프로야구와 일본프로야구는 마운드 높이를 현재 10인치로 규정하고 있다.

용병 투수 모두가 미국과 일본에서 편견이 있는 선수들이라 새로운 마운드 높이에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문제는 한국 타자들과 승부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데 있다.

마운드가 13인치였던 올해까지 장신의 외국인 투수들은 큰 키에서 내리꽂는 '자연스러운' 낙차를 앞세워 한국 프로야구

에서 독특한 재미를 봤다.

특히 키가 188cm인 팀 하리칼라(LG)와 마이클 캘러웨이(현대·185cm) 등 정통파 투수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마운드가 8cm 가량 낮아지는 내년부터는 '하늘에서 내려 오는' 공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SK에 새롭게 등지를 트 케니 레이번과 마이크 로마노의 신장은 각각 191cm와 188cm.

삼성 유니폼을 입은 크리스 윌슨도 193cm의 윗등한 키를 자랑하나 이전 외국인 투수들이 누렸던 혜택은 남의 일이었다.

이들보다 신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맷 랜들(두산·184cm), 카브레라(183cm), 에터튼(185cm)도 평범한 투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또 마운드 조정과 스트라이크 존 변화에 따라 정통파가 아닌 스리쿼터형 또는 사이드암 투수들의 위력도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프런트 인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26일 2007년 프런트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운영팀 트레이너인 장세홍 대리는 과

장으로 승진했고, 조찬관 스카우트팀 과

장은 전력분석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김명근 경영관리팀 차장은 운영팀 1군 매니저를 맡게 됐고 김도균 운영팀 사원은 2군 매니저가 됐다.

스카우트팀과 전력분석팀장을 겸직했

던 김경훈 부장은 스카우트팀만 맡게

됐다. 이밖에 노대권 운영팀 1군 매니저는 경영관리팀으로, 운영팀 2군 매니저인 김태안 과장은 스카우트팀으로, 전력분석팀 김동현 대리는 스카우트팀과 겸직도 했다.



플렉스 요트경기 힘찬 스타트

26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06 플렉스 시드니 호바트 요트 경기에 참가한 각국의 요트들이 해안선을 따라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첫 국제 테니스 주심 탄생

임차훈씨 브론즈 심판자격 획득

내년 2월 춘천 데이비스컵 참가

내년 2월9일~11일 사흘간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벌어지는 남자 테니스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그룹 I 한국-카자흐스탄전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는 장면 하나가 팬들의 눈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바로 한국인 심판이 주심으로 나선다. 그

동안 국내 데이비스컵대회에서는 국제테니스연맹(ITF) 소속 외국 심판 2명을 초청해 주심을 맡겼다.

국내에서는 데이비스컵 레퍼리로 활약할 수 있는 '브론즈' 자격을 갖춘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자격을 갖춘 심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선수출신의 임차훈(38·사진) 대 한테니스협회 과장, 국내에서 ITF 공인 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모두 10명.

그 중 한 명인 임차훈 과장은 2006 도하



시안게임에서 선심으로 활약했고, 곧바로 현지에서 나흘간 치러진 브론즈 심판시험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수백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자 13명에 이름을

올렸다. ITF는 레퍼리를 화이트(white)-브론즈(bronze)-실버(silver)-골드(gold) 등 4단계로 나누고 있다. 뒤로 갈수록 경력이 화려한 베테랑 심판을 뜻하고 낮은 단계는 심판으로 출장할 수 있는 대회가 엄격히 제한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